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화순군 농기계 임대사업 농가에 '호자 노릇' 톡톡

농가 만족도 높아...심의위, 올 사업 확정



화순군이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소, 농가 경영비 절감에 효과가 커 농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농가 만족도가 높아 임대 대수, 임대 일수, 임대 농가 등이 계속해서 늘었다. 지난해 누적 임대 건수는 3593건으로 전년 대비 13%, 이용 일수는 3889일로 1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임대 농기계 대수, 예산, 현장 맞춤형 서비스 등 사업 규모를 늘려 왔다. 현재 군은 임대사업소 2개소(분소·분소)를 운영 중이고 임대 농기계는 65종 380대다.

군은 올해 국비 1억 원과 군비 7000만 원 등 2억 원을 들여 임대 농기계 11종 34대를 사들여 노후 농기계를 교체할 계획이다. 이 중 1억

원은 지난해 정부 평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돼 상사업비(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로 확보했다.

2017년부터 시작한 '현장 배송서비스'는 농업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임대 농기계를 농가까지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는 영농 취약계층인 고령 농가, 여성 농업인, 귀농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임대사업소 연장 운영도 임대사업 활성화에 한몫했다. 군은 농사철인 3월부터 11월까지 임대사업소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평일) '1시간 연장' 운영한다. 공휴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군은 농업인의 사고 불감증을 해소하고 '농기계 사고율 제로

(zero)'를 목표로 연중 안전교육(농기계 전문교육)을 시행해 왔다. 농기계 사고 원인과 치사율에 주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농사용 굴착기, 트랙터, 관리기 등 기종별 안전사용을 위한 이론을 물론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200명이다.

해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도 13개 읍·면의 32개 마을 농민 6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형 농기계 수리 서비스뿐 아니라 농기계 작동과 점검 방법 등을 교육한다.

군은 지난 12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사업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의 사업 확정에 따라 군은 임대 농기계 자체 점검 등 사업 준비에 한창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절감,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농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크다"며 "농업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임대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에 주소지나 농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기계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379-5465)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암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회 개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와 Non-GMO 식재료의 학교급식 지원



영암군은 지난 13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심의회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와 Non-GMO(유전자변형 농산물 미사용) 식재료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안)을 심의했다.

군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은 보육시설 및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쌀, 채소, 과일 등)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자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1식당 중식에 한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게 되며, 전남도가 18%, 군이 42%, 학교에서 40%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대상은 94개소(어린이집 41, 유치원 17, 초등학교 16, 중학교 12, 고등(특수)학교 8)에 7,561명이고 약 16.4억원의 사업비를 군에서 지원하게 될 계획이며, 공급업체로는 영암농협과 산호농협으로 결정됐다.

군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 공급을 재확인했다. 다만 예산의 30% 범위에서 ▲친환경 축수산물 ▲유기농 인증 식품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도지사품인인증 제품의 공급은 가능하며, 학생 수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해 군에서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Non-GMO 식재료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87개소 5,822명에게 3개 품목(간장, 된장, 두부)의 가공식품을 지원하게 되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식재료를 Non-GMO 식재료로 대체하게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여수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8일부터 4월 16일까지...뉘시어선 150척, 시설·건축물 등

여수시는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 '2019 국가 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

진점 대상은 뉘시어선 150척, 시설·건축물 등 287개소다.

이런 안전대진단은 자체점검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위험시설 기준에 따라 안전대진단 시설 전체를

합동 점검한다.

또 안전점검 설명회를 통해 점검자 책임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대진단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문제점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하겠다"며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안전대진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 관광사진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회 개최

무안군은 지난해 개최된 '2018 무안군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입상 및 입선한 우수작품 82점을 대상으로 다음달 29일까지 무안군 오송우미미술관과 무안국제공항 2층 입국장에서 전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2018 무안군 관광사진 공모전'은 일반사진과 항공사진 두 부문에서 무안의 자연경관·축제·문화·생활 등을 주제로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484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12점의 입상작과 70점의 입선작이 선정되었다.

이에 군에서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품들을 활용하여 지난해 12월부터 무안군청, 무안국제공항, 무안군 오송우미미술관에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순회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무안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여러 우수한 관광자원 등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담양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9.07% 상승

담양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07% 상승했다.

담양군은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양군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와 주택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요 증가와 실재거래가격 반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평균상승률은 전국 9.42%, 광주광역시 10.71%, 전남 6.28%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담양군의 2019년 표준지 2,354필지 중 최고가는 담양읍 상암용지(1㎡당 157만1천5백원), 최저가는 용면 자연림(1㎡당 275원)으로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외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군열린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는 내달 14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진도군, 김스클럽서 울금 기획전 개최

강남점·야탑점 동시 판매

진도군이 농수특산물 가공·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서 진도 울금 판매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랜드리테일 뉴코아 아울렛 김스클럽 강남점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NC백화점 야탑점 지하 김스클럽에서 진도울금 판매 기획전을 열고 있다.

군은 이번 판매 기획전을 통해 진

도군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한 품질의 진도 울금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판로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진도건조·생울금, 울금분말, 울금차, 울금과일, 울금누룽지 등 6종류 품목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기획전에서는 시식·시음 행사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울금산업 특구' 지정 기념으로 1+1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개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